

샘터 7월호
이문진 24호 06-5-15

12.6

70세를 넘어서 꽃피운 인생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우리나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이 지난 40년간 20년이 늘어났으며 앞으로 그 증가추세가 가속화되어서 건강한 사람들은 90~100세 인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사오정 오륙도'라는 신조어가 거세게 회자되면서 조기정년퇴직이 강요되고 사람들은 퇴직 후의 삶을 걱정하게 되었다.

때맞춰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가 출판한 '인생을 이모작하라'는 책은 2020년경 닥쳐올 초고령화시대를 예측하면서 인생을 전후기로 나누어서 전반부의 삶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삶이라면 후반부의 삶은 자기의 보람을 찾아서 살 수 있는 삶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하제를 모았다.

장수를 누리게 된 것은 인류가 바라는 바였으나 수명이 길어진 데 반해 생업으로부터의 조기퇴직이 후반부의 생을 더 길게 한 점과 화급하게 불거진 저출산문제가 맞물리면서 사람들의 노년기의 문제가 사회의 심각한 화두로 부상하였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데서 국민 개개인의 대비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사람이 한 평생을 어떻게 보람 있게 살 것인가 하는데 생각이 미치자 언젠가 읽었던 책의 주인공이 생각났다.

2002년 초여름 일본에 갔을 때 들린 서점에서 '70세를 넘어서 꽃피운 인생이 있다.'라는 책 띠의 글귀에 눈이 쏠렸다. 그 책은 63세의 나이에 제8대 유엔난민기구(UNHCR)의 고등판무관으로 취임하여 10년 동안 활동하였으며 퇴임 후에도 경륜 있는 국제인으로서 국내외적으로 국제관련 업무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오가다 사다코(緒方貞子)의 일과 삶을 소개한 것이었다. 그때 바로 70세였던 나는 하던 일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호기심에 차서 그 책을 단숨에 읽었다.

그는 1970년도에 140만이었던 난민이 2천만으로 늘어나면서 '난민의 세기'라 불리는 20세기 말 10년간을 해마다 지구를 세 번 도는 거리를 방탄조끼를 입고 누비면서 현장을 중시하는 난민구호활동을 전개한 남다른 판무관이었다. '난민의 어머니' 또는 '일본의 마더 테레사'라는 칭호를 얻기까지의 그의 진정어리고 헌신적인 활약상은 강인하고 따뜻한 동양의 여성상을 국제무대에서 유감없이 과시한 것이다. 우리나라 선명회의 긴급구호팀장으로 일찍부터 세계난민구호활동에 몸담고 있는 한비야를 떠올리게 한다.

그는 판무관직에서 퇴임한 후 국가가 제의한 훈장수여를 '훈장은 일을 끝낸 사람에게 주는 영예'라고 거절할 만큼 8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또 할 일이 남아있음을 밝힌 의욕적인 사람이다. 그 무렵 일본에서 개최된 아프가니스탄 복구지원회의의 의장으로서 3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로부터 45억불을 모금해냄으로써 그의 탁월한 수완을 입증해냈다. 그러한 그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발현되는 것일까 생각하게 한다.

그가 오늘의 국제인이 되는 데에는 외교관 집안에서 태어난 가정환경이 한몫하기도 했지만 본인의 목적지향적인 끈질긴 노력이 주효했다. 그는 일본의 패전으로 끝난 제이차세계대전 당시 금기시되었던 영어공부를 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국생활을 하는 동안 자기 나

라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국제정치학과 국제관계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이 기초가 된 듯하다. 그것도 영어는 모국어처럼, 전공분야는 대학 강단에서나 국제무대의 실무에서 거침없이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무장했단다. 실력과 체력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데서 나이를 잊은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가 보다. 사람들은 동시대를 살지만 자기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각자의 삶의 내용은 달라진다.

나의 경우 실력의 기초를 다져야 하는 중고등학교 과정은 시대의 사정에 따라 집안이 만주에서 평양으로 그리고 남한으로 옮겨 다니느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대학생들은 6·25가 남긴 상흔을 치유한다는 명분으로 학업보다 교외활동에 치중했던 나머지 자기준비를 어느 것 하나 철저하게 다지지 못한 결과 내가 하는 매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현실참여를 하면서도 제때에 해야만 하는 일은 했어야 했다. 후회한들 소용없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후학들에게 젊었을 때 해야 하는 자기준비의 시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누구나가 오가다 사다꼬처럼 살 수도 또한 살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만 그에게서 배우는 것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생업은 물론 심지어 노는 일을 위해서도 그 기량과 수단은 젊었을 때 익혀두고 다져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생을 마칠 때까지 자신의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에게는 나이와 상관없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장수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삶을 준비하는가에 따라 70세가 넘어서도 꽃피울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